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6)(3/25/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1 장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멸시함, 4-5 절

창 6:12 -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 7:21 - 땅 위의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마 7:16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4. 안타깝고 서글프게도, 우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치밀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홍수를 보내신 것은,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창 6:12; 7:21). 우리의 내면의 성정이 지극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도 타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행위는 우리의 내면에 힘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증표입니다. 순전한 마음에서 선한 삶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마 7:16).

5.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덕을 행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용감한지, 부유한지, 잘 생겼는지, 훌륭한 작가인지, 훌륭한 가수인지, 훌륭한 일꾼인지에 대해서는 묻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얼마나 오래 참고 온유한지, 얼마나 경건하고 영적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사람과 관련된 외적인 것들을 주목하는 반면에, 은혜는 그 사람의 내면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흔히 속아 넘어가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말씀과 해설:

성도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야 하고, 그와 함께 자신의 외적인 모습도 잘 살피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늘 조심하며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말의 문제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신다.

잠 15:23 -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 15:28 -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 29:20 -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약 1:19 -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엡 4:25 -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경은 인간의 행실에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한다. 사 1:16 -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바울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 하게 드러내었다. 롬 1:28-32 -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모든 행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이 된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창 3:17 -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행실을 성찰할 때 그것이 선이나 악이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행하며, 그 행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의 섬김은 나의 업적이나 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진실된 섬김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마 6:1, 3-4 -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대단한 성취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덕을 세웠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롬 15:2 -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전 10:23-24 -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행실을 조심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실천하는지를 성찰한다. 요 13:34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성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캄보디아 김기대, 오만 김데이비드, 몽골 김봉춘, 터키 김홍기)의 가정과 사역을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 교육부서에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며,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